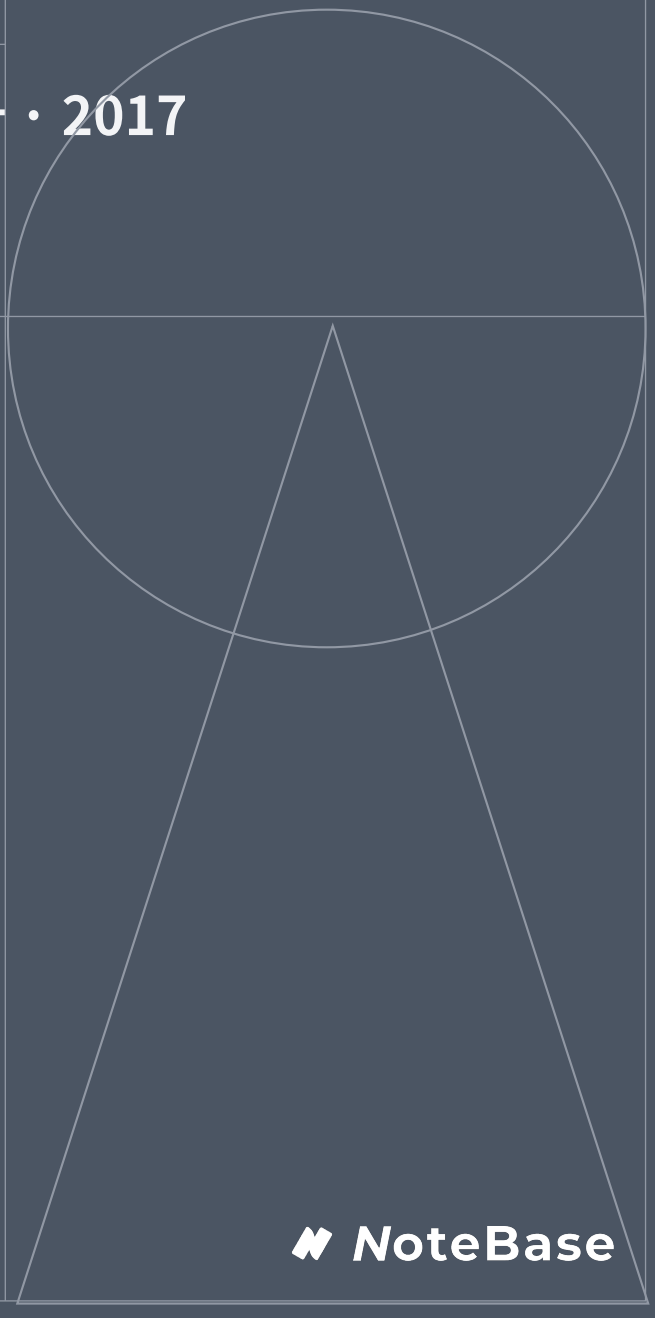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지방직/7급 · 한국사 · 2017



NoteBase

기출OX 해설집

공무원/지방직/7급 · 한국사 · 2017

공무원/지방직/7급 · 한국사 · 2017

문 1. ㉠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 (㉠)은 한국 민족사의 주체적 발전과 민족 문화의 우수성을 강조하면서, 민족 정신을 중시하고 이를 고취시켜 독립을 이룩하려는 의도를 강하게 드러냈다. 박은식, 신채호 등이 대표적 인물이다.
○ (㉡)은 사회구성체 발전 단계론의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하면서 역사 발전의 원동력을 민중에게서 구했으며, 우리 역사를 유물사관의 방법론에 맞추려고 하였다. 백남운, 이청원 등이 대표적 인물이다.
○ (㉢)은 순수 학문으로서의 역사학을 지향하며 문헌 고증을 중시하였다. 이병도, 손진태 등이 대표적 인물이다.

① (㉠): 민족주의사학, (㉡): 사회경제사학, (㉢): 실증사학
② (㉠): 실증사학, (㉡): 민족주의사학, (㉢): 사회경제사학
③ (㉠): 민족주의사학, (㉡): 실증사학, (㉢): 사회경제사학
④ (㉠): 사회경제사학, (㉡): 실증사학, (㉢): 민족주의사학

정답 1번

정답

정답은 1번이다.

출제 포인트

일제 강점기 한국사 연구의 민족주의사학·사회경제사학·실증사학을 대표 인물과 역사 인식으로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민족주의사학은 민족의 주체성과 독립 의지를 강조한 역사학으로, 박은식·신채호가 대표적이다.
사회경제사학은 유물사관과 사회구성체 발전 단계론으로 민중을 역사 발전의 원동력으로 본 역사학으로, 백남운·이청원이 대표적이다.
실증사학은 문헌 고증과 사실 검증을 중시하여 순수 학문으로서의 역사학을 지향한 연구 경향으로, 이병도·손진태가 대표적이다.
민족주의사학은 민족의 주체성, 사회경제사학은 유물사관, 실증사학은 문헌 고증이 핵심 키워드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ㄱ은 민족주의사학, ㄴ은 사회경제사학, ㄷ은 실증사학으로 모두 올바르게 연결하였다.
② X. ㄱ을 실증사학, ㄴ을 민족주의사학, ㄷ을 사회경제사학으로 연결한 부분이 틀렸다. 올바르게는 ㄱ은 민족주의사학, ㄴ은 사회경제사학, ㄷ은 실증사학이다.
③ X. ㄴ을 실증사학, ㄷ을 사회경제사학으로 연결한 부분이 틀렸다. 올바르게는 ㄴ은 사회경제사학이고 ㄷ은 실증사학이다.
④ X. ㄱ을 사회경제사학, ㄴ을 실증사학, ㄷ을 민족주의사학으로 연결한 부분이 틀렸다. 올바르게는 ㄱ은 민족주의사학, ㄴ은 사회경제사학, ㄷ은 실증사학이다.

오답 포인트

사회경제사학과 실증사학을 모두 근대적 역사 연구로만 묶어 혼동하기 쉽다. 유물사관·민중·백남운이 보이면 사회경제사학이고, 문헌 고증·이병도·손진태가 보이면 실증사학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대표 인물을 단서로 분류한 뒤 역사 인식으로 확인한다. 박은식·신채호는 민족주의사학, 백남운·이청원은 사회경제사학, 이병도·손진태는 실증사학에 연결한다.

암기 포인트

신채호는 민족, 백남운은 유물사관, 이병도는 고증이다.

NoteBase

문 2. 몽골 침입 시기에 발생한 사건 중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망이 · 망소이, 만적 등이 봉기하였다.
ㄴ. 강화도 천도에 대해 삼별초가 반대하였다.
ㄷ. 황룡사 구층목탑과 초조대장경이 불에 탔다.
ㄹ. 김윤후와 처인 부곡민들이 몽골 장수 살리타 군대를 물리쳤다.
ㅁ. 부처의 힘으로 몽골군을 물리치기 위해 팔만대장경을 조판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ㅁ
③ ㄴ, ㄷ, ㄹ
④ ㄷ, ㄹ, ㅁ

정답 4번

정답

정답은 4번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몽골 침입기에 일어난 항몽 활동·문화재 소실 사건과 그보다 앞선 무신 집권기 봉기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몽골 침입기에는 황룡사 구층 목탑과 초조대장경의 소실, 처인성 전투의 승리, 부처의 힘으로 국난을 극복하려는 팔만대장경 조판이 나타난다.
무신 집권기에는 망이·망소이의 봉기와 만적의 봉기처럼 지배층에 맞선 하층민의 봉기가 나타난다.
삼별초는 고려 정부의 개경 환도에 반대하여 항쟁하였으므로, 강화도 천도에 반대하였다는 설명은 맞지 않는다.

선지별 해설

① X. ㄱ의 망이·망소이와 만적의 봉기는 몽골 침입 이전 무신 집권기에 일어났다. ㄴ도 틀리다. 틀린 표현은 '강화도 천도에 대해 삼별초가 반대하였다'이며, 올바르게는 삼별초가 고려 정부의 개경 환도에 반대하였다.
② X. ㅁ은 맞지만 ㄱ이 틀리다. 틀린 표현은 'ㄱ, ㅁ'이며, 올바른 조합은 ㄷ, ㄹ, ㅁ이다.
③ X. ㄷ과 ㄹ은 맞지만 ㄴ이 틀리다. 틀린 표현은 'ㄴ, ㄷ, ㄹ'이며, 삼별초는 강화도 천도가 아니라 개경 환도에 반대하였다.
④ O. 황룡사 구층 목탑과 초조대장경은 몽골 침입으로 불에 탔고, 김윤후와 처인 부곡민은 살리타가 이끈 몽골군을 물리쳤다. 또한 몽골군을 물리치려는 염원으로 팔만대장경을 조판하였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망이·망소이와 만적의 봉기는 모두 고려 전기 무신 집권기 사건인데, '몽골 침입 시기'라는 시대 범위에 섞어 놓은 것이 함정이다. 삼별초는 강화도 천도와 개경 환도를 서로 바꾸어 제시한 점도 주의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사건을 무신 집권기와 몽골 침입기로 나눈다. 하층민 봉기는 무신 집권기, 문화재 소실·처인성 항전·팔만대장경·삼별초의 개경 환도 반대는 몽골 침입기와 연결하여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몽골 침입: 황룡사·초조대장경 소실, 처인성 승리, 팔만대장경, 삼별초의 개경 환도 반대이다.

NoteBase

문 3. 고려 사회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여성은 재혼이 가능하였다.
ㄴ. 여성은 호주가 될 수 없었다.
ㄷ. 부모의 재산은 아들과 딸의 구분 없이 고르게 상속되었다.
ㄹ. 결혼할 때 여성이 데려온 노비에 대한 소유권은 남편에게 귀속되었다.

① ㄱ, ㄴ
② ㄱ, ㄷ
③ ㄴ, ㄹ
④ ㄷ, ㄹ

정답 2번

정답

정답은 2번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고려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와 재산권이 조선 사회보다 비교적 보장되었는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고려의 여성은 재혼할 수 있었고 호주가 될 수도 있었으며, 아들과 딸이 부모의 재산을 비교적 균등하게 상속하였다. 혼인 때 여성이 데려온 노비도 여성의 소유 재산으로 인정되었다. 고려는 여성의 재혼·호주·재산권을 비교적 인정한 사회이고, 조선은 유교적 가부장 질서가 강화되면서 이러한 권리가 약화된 사회이다.

선지별 해설

① ㄱ O. 고려에서는 여성이 재혼하는 것이 가능하였다.
② ㄴ X. 틀린 표현은 '호주가 될 수 없었다'이다. 고려에서는 여성이 호주가 될 수 있었으므로, 올바르게는 '여성도 호주가 될 수 있었다'이다.
③ ㄷ O. 고려에서는 부모의 재산을 아들과 딸의 구별 없이 비교적 고르게 상속하였다.
④ ㄹ X. 틀린 표현은 '남편에게 귀속되었다'이다. 혼인 때 여성이 데려온 노비는 여성의 소유 재산으로 인정되었으므로, 올바르게는 '여성에게 귀속되었다'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ㄴ과 ㄹ은 조선의 가부장적 가족 질서를 고려 사회에 적용한 함정이다. 고려 여성은 호주가 될 수 있었고, 혼인 때 데려온 노비에 대한 소유권도 인정받았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고려 여성사 선지에서는 재혼 가능, 여성 호주 가능, 딸의 재산 상속, 여성의 재산권을 먼저 확인한다. '불가능', '남편에게 귀속'처럼 여성의 권리를 일률적으로 부정하는 표현은 조선의 특징인지 비교하여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고려 여성은 재혼·호주·균분 상속·재산권이 비교적 보장되었다.

NoteBase

문 4. 다음 자료에 해당하는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해마다 5월이면 씨뿌리기를 마치고 귀신에게 제사를 지낸다. 떼를 지어 모여서 노래와 춤을 즐긴다. 술 마시고 노는데 밤낮을 가리지 않는다. … 10월에 농사일을 마치고 나서도 이렇게 한다.

- 『삼국지』 위서 동이전 -

① 명주와 삼베를 짜는 방직기술이 발달하였다.
② 고구려와 풍속이 달랐고 민며느리제가 있었다.
③ 정치적 지배자 외에 제사장인 천군이 있었다.
④ 간음한 자와 투기가 심한 부인은 사형에 처하였다.

정답 3번

정답

정답은 3번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5월 파종 뒤와 10월 수확 뒤에 제천 행사를 연 삼한의 사회·종교 체제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삼한은 여러 소국으로 이루어진 연맹체이며, 농경 생활과 연결된 5월·10월의 계절 제천 행사를 열었다. 삼한의 별읍인 소도는 제사장인 천군이 주관한 신성 지역으로, 정치적 군장의 세력이 미치지 못하였다.
동예는 명주·삼베 방직 기술과 10월 무천이 특징이다. 옥저는 민며느리제가, 부여는 간음과 투기가 심한 부인에 대한 엄격한 형벌이 특징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명주와 삼베를 짜는 방직 기술'은 동예의 경제 생활에 해당한다. 틀린 표현은 삼한에 이 특징을 적용한 점이며, 올바르게는 동예에서 방직 기술이 발달하였다.
② X. '고구려와 풍속이 달랐고 민며느리제가 있었다'는 옥저의 풍속이다. 틀린 표현은 삼한에 민며느리제를 적용한 점이며, 올바르게는 옥저에 민며느리제가 있었다.
③ O. 삼한에는 정치적 지배자인 군장과 별도로 소도의 제사를 주관한 제사장 천군이 있었다.
④ X. '간음한 자와 투기가 심한 부인을 사형에 처하였다'는 부여의 엄격한 법률 풍습에 해당한다. 틀린 표현은 삼한에 이 형벌을 적용한 점이며, 올바르게는 부여에서 이러한 처벌이 행해졌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①의 동예, ②의 옥저, ④의 부여 특징을 5월·10월 제천 행사라는 삼한의 단서와 섞기 쉽다. 특히 동예도 10월에 무천을 열었으므로, 5월과 10월에 모두 제천 행사를 열었다는 자료의 표현을 확인해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5월 파종 뒤와 10월 수확 뒤의 제천 행사가 함께 제시되면 삼한으로 판단한다. 이어서 천군·소도는 삼한, 무천·책화·방직은 동예, 민며느리제는 옥저, 엄격한 형벌은 부여로 구분한다.

암기 포인트

삼한은 '5월·10월 계절제와 소도·천군', 동예는 '무천·책화', 옥저는 '민며느리제', 부여는 '엄격한 법'이다.

NoteBase

문 5. 우리나라의 시기별 교육 변화 양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1960년대 -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가 처음 실시되었다.

② 1970년대 - 처음으로 고등학교 입학시험이 연합고사로 바뀌었다.

③ 1980년대 - 학교 교육과 별개로 사교육인 과외가 활성화되었다.

④ 1990년대 -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실시되었다.

정답 3번

정답

정답은 3번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1960년대 이후 중학교·고등학교 입시 제도와 과외 정책의 변화를 시기별로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는 입시 경쟁을 완화하기 위해 1969년에 처음 실시된 제도이다. 고교 평준화 정책은 1974년부터 연합고사와 추첨 배정을 활용하였다. 1980년 7·30 교육개혁 조치는 과외를 금지한 조치이며, 대학수학능력시험은 1994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시행되었다.

선지별 해설

① O. 중학교 무시험 진학제도는 1969년에 처음 실시되었으므로 1960년대라는 시기와 맞다.
② O. 1974년 고교 평준화가 시행되면서 고등학교 입학 전형에 연합고사가 처음 도입되었다.
③ X. 틀린 표현은 '사교육인 과외가 활성화되었다'이다. 1980년에는 7·30 교육개혁 조치로 과외가 금지되었다.
④ O. 대학수학능력시험은 1994학년도 대학 입시부터 실시되었으므로 1990년대라는 시기와 맞다.

오답 포인트

③은 1980년대의 교육정책을 '과외 활성화'로 뒤집어 놓은 선지이다. 이 시기의 핵심은 입시 과열을 줄이기 위한 과외 금지 조치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교육정책은 '1969 중학교 무시험', '1974 고교 평준화·연합고사', '1980 과외 금지', '1994학년도 수능'의 흐름으로 대조하여 시기와 정책 방향이 함께 맞는지 판단한다.

NoteBase

암기 포인트

69 중학 무시험 → 74 고교 평준화·연합고사 → 80 과외 금지 → 94학년도 수능이다.

NoteBase

문 6.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임금께서 말하기를, “칠사(七事)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니, 변정원이 대답하기를, “농상(농사와 양잠)을 성하게 하는 일, (㉠)을/를 일으키는 일, 소송을 간략하게 하는 일, 간활(간사하고 교활함)을 없애는 일, 군정(軍政)을 닦는 일, 호구를 늘리는 일, 부역을 고르게 하는 일이 바로 칠사입니다.”라고 하였다.

— 『성종실록』 —

① 유학에 힘쓰게 한다.

② 도적이 없게 한다.

③ 호적을 정리하고, 군역과 요역을 감독한다.

④ 중앙의 명령을 전달한다.

정답 1번

정답

정답은 1번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고려 성종 때 지방관의 업무 지침인 칠사(七事) 가운데 ‘학교를 일으키는 일’, 즉 흥학의 뜻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칠사는 지방관이 힘써야 할 일곱 가지 행정 과제이다. 이 가운데 흥학은 학교를 세우고 유학 교육을 장려하는 일이다. 농상 장려·호구 증가·송사 간략·간활 제거·군정 정비·부역 균등은 각각 별도의 과제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유학에 힘쓰게 하는 일은 학교를 일으켜 유학 교육을 장려하는 흥학의 내용이므로 ㄱ에 해당한다.

② X. 틀린 표현은 '도적이 없게 한다'가 ㄱ을 설명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도적 등 간사하고 교활한 행위를 없애는 것은 칠사의 '간활을 없애는 일'에 해당하며, ㄱ은 흥학이다.

③ X. 틀린 표현은 '호적을 정리하고, 군역과 요역을 감독한다'가 ㄱ을 설명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이는 군정을 닦는 일이나 부역을 고르게 하는 일과 관련된 업무이고, ㄱ은 학교를 일으켜 유학을 장려하는 일이다.

④ X. 틀린 표현은 '중앙의 명령을 전달한다'가 ㄱ을 설명한다는 점이다. 실제로 중앙 명령의 전달은 지방 행정 실무와 관련된 역할이며, ㄱ은 교육 진흥을 위한 흥학이다.

오답 포인트

②의 치안 유지, ③의 군정·부역 업무, ④의 중앙 명령 전달은 모두 지방 행정과 관련되어 흥학과 혼동하기 쉽다. 그러나 지문에서 '학교를 일으키는 일'이라고 한 표현이 나오면 교육·유학 진흥을 뜻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칠사의 업무를 교육·치안·군정·부역처럼 기능별로 나누어 판단한다. 학교·유학이라는 단서가 있으면 흥학, 간활·도적이라는 단서가 있으면 간활 제거, 군역이라는 단서가 있으면 군정 정비와 연결된다.

암기 포인트

칠사에서 학교를 일으킴 = 흥학 = 유학 교육 장려이다.

NoteBase

문 7. 밑줄 친 '입법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 조선의 민주독립을 보장한 3상회의 결정에 의하여 남북을 통한 좌우합작으로 민주주의 임시정부를 수립할 것.
2. 미·소공동위원회 속개를 요청하는 공동성명을 발표할 것.
3. 토지개혁에 있어 몰수, 유조건 몰수, 체감매상 등으로 토지를 농민에게 …
4. … 본 합작위원회에서 입법기구에 제안하여 입법기구로 하여금 심리 결정케 하여 실시케 할 것.

… (후략)

① 「입법의원 의원선거법」을 제정하였다.

② 초대의장으로 여운형이 선임되었다.

③ 관선과 민선 두 종류의 의원이 있었다.

④ 「민족반역자·부일협력자·간상배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정답 2번

정답

정답은 2번이다.

출제 포인트

제시문의 입법기구는 미군정기에 설치된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이다. 이 기관의 구성과 제정 법률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은 미군정 아래에서 법률 제정을 담당한 과도적 입법기관이다. 관선 의원과 민선 의원으로 구성되었으며, 민족반역자·부일협력자·간상배에 대한 특별법 등을 제정하였다. 초대 의장은 김규식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은 「입법의원 의원선거법」을 제정하였다.
② X. 틀린 표현은 '여운형'이다. 초대 의장은 여운형이 아니라 김규식이다.
③ O.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은 미군정이 임명한 관선 의원과 선거로 뽑힌 민선 의원으로 구성되었다.
④ O.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은 친일 세력 처벌을 위해 「민족반역자·부일협력자·간상배에 대한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오답 포인트

여운형은 좌우 합작 운동과 관련되어 자주 함께 제시되므로,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의 초대 의장으로 잘못 연결하기 쉽다. 의장 인물은 김규식으로 구별한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미군정기 입법기구, 관선·민선 의원의 병존, 친일파 처벌 특별법이라는 단서가 함께 나오면 남조선과도입법의원을 먼저 떠올린다. 이어 의장은 김규식인지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남조선과도입법의원: 관선·민선 병존, 초대 의장 김규식, 친일파 처벌 특별법 제정이다.

NoteBase

문 8. 세종 재위 기간에 있었던 사실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왜구의 소굴인 쓰시마 섬을 정벌하였다.
ㄴ. 삼포에 대한 조선 정부의 통제가 강화되자, 삼포왜란이 일어났다.
ㄷ. 김종서를 함경도 관찰사로 임명하여 두만강 유역에 6진을 개척하였다.
ㄹ. 압록강 방면에 여진족의 침입이 잦아지자, 최윤덕을 파견하여 그들을 토벌하였다.
ㅁ. 쓰시마 도주(島主)와 계해약조를 맺어 연간 50척의 세견선을 파견할 수 있게 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ㄷ, ㄹ
③ ㄱ, ㄷ, ㄹ, ㅁ
④ ㄴ, ㄷ, ㄹ, ㅁ

정답 3번

정답

정답은 3번이다.

출제 포인트

세종 재위 기간의 대왜 정책과 북방 개척 사업을 다른 시기의 사건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세종은 왜구에 대응하여 1419년 이종무를 보내 쓰시마섬을 정벌하고, 1443년 계해약조를 맺어 제한된 무역을 허용하였다. 북방에서는 여진을 토벌한 뒤 압록강 유역에 4군, 두만강 유역에 6진을 개척하여 국경을 정비하였다. 삼포왜란은 세종 때가 아니라 1510년 중종 때 일어난 사건이다.

선지별 해설

① X: ㄴ이 틀려 이 조합은 성립하지 않는다. ㄱ은 세종 1년인 1419년 이종무의 쓰시마섬 정벌로 옳다. 그러나 ㄴ의 '삼포왜란'은 세종 대가 아니라 중종 5년인 1510년에 일어났다.
② X: ㄴ이 포함되어 틀리고, ㅁ이 빠져 있다. ㄷ은 김종서를 함경도 관찰사로 임명하여 두만강 유역에 6진을 개척한 세종 때의 일이다. ㄹ도 여진을 토벌하기 위해 최윤덕을 파견한 세종 때의 일이다.
③ O: ㄱ·ㄷ·ㄹ·ㅁ은 모두 세종 재위 기간의 사실이다. ㅁ의 계해약조는 쓰시마 도주와 맺어 연간 50척의 세견선을 허용한 약조이다.
④ X: ㄴ이 포함되어 틀리고, ㄱ이 빠져 있다. 틀린 표현인 '삼포왜란이 일어났다'는 중종 때의 사실로 고쳐야 한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삼포왜란은 조선의 왜인 통제 강화와 관련되지만 시기는 1510년 중종 때이다. 세종의 대왜 정책인 쓰시마섬 정벌·계해약조와 원인은 이어져 보여도 같은 재위 기간으로 묶으면 안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세종의 대외 정책은 남쪽의 쓰시마섬 정벌과 계해약조, 북쪽의 여진 토벌·4군 6진 개척으로 먼저 묶어 판단한다. 삼포왜란이 보이면 중종 때 사건으로 분리한다.

암기 포인트

세종: 쓰시마 정벌·계해약조·4군 6진 / 중종: 삼포왜란이다.

NoteBase

문 9. 다음 자료 이후에 나타난 사실로 옳은 것은?

대사헌 조준이 글을 올려 아뢰기를 " … 근년에는 (토지를) 겸병하는 일이 더욱 심해져 간사하고 흉악한 무리의 토지가 주(州)에 걸치고 군(郡)을 포괄하며, 산천을 경계로 삼을 정도입니다. 1부(敷)의 주인이 5, 6명이나 되고 1년에 조세를 받는 횟수가 8, 9차에 이릅니다. 위로는 어분전(御分田)부터 중실·공신·조정·문무관의 토지, 외척·진·역·원·관의 토지와 백성들이 여러 대 동안 심은 뽕나무와 지은 집에 이르기까지 모두 빼앗아 차지하니 호소할 곳 없는 불쌍한 백성들이 사방으로 흩어져 떠돌아다닙니다."

① 전시과를 공포하여 전제개혁을 단행하였다.

② 전제개혁으로 신진사대부들은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③ 이성계에 반대하는 신하들에게는 토지를 분배하지 않았다.

④ 과전 지급 지역은 경기에 한정되었고, 지급 대상은 전직, 현직 관리였다.

정답 4번

정답

정답은 4번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조준의 토지 겸병 시정 요구 뒤 실시된 과전법의 내용과 전시과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전시과는 고려의 토지 제도로서 관리의 관등과 인품 등을 기준으로 토지를 지급한 제도이다. 과전법은 고려 말 권문세족의 토지 겸병을 바로잡기 위해 마련한 제도로, 경기 지방의 토지를 전·현직 관리에게 수조권 형태로 지급하였다. 두 제도 모두 관리에게 토지를 지급하였지만, 전시과는 고려의 제도이고 과전법은 고려 말 토지 제도 개혁의 결과라는 점이 다르다.

선지별 해설

① X: 전제 개혁으로 공포된 것은 과전법이다. 틀린 표현은 '전시과'이며, 올바르게는 '과전법을 공포하여 전제 개혁을 단행하였다'이다.
② X: 과전법은 신진 사대부를 배제한 제도가 아니라, 이들의 경제적 기반을 마련한 제도이다. 틀린 표현은 '신진 사대부들은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이며, 올바르게는 '과전법은 신진 사대부의 경제적 기반이 되었다'이다.
③ X: 과전법의 토지 지급 기준은 이성계에 대한 찬반이 아니라 전·현직 관리라는 관료 자격이었다. 틀린 표현은 '이성계에 반대하는 신하들에게는 토지를 분배하지 않았다'이며, 올바르게는 '전·현직 관리에게 경기 지방 토지의 수조권을 지급하였다'이다.
④ O: 과전법은 지급 지역을 경기 지방으로 한정하고, 전·현직 관리에게 토지의 수조권을 지급하였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①은 고려의 전시과를 과전법과 바꾸어 놓은 선지이다. 또한 ②처럼 과전법을 신진 사대부에게 불리한 제도로 이해하면, 권문세족의 토지 겸병을 시정하려 했다는 제정 목적을 놓치게 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고려 말 조준의 토지 겸병 비판과 전제 개혁이 나오면 과전법을 연결한다. 이어서 '경기 지방', '전·현직 관리', '수조권 지급'이 함께 제시되는지 확인하면 된다.

암기 포인트

과전법 = 고려 말 전제 개혁, 경기 지방, 전·현직 관리에게 수조권 지급이다.

NoteBase

문 10. ㄱ ~ ㄷ에 들어갈 책의 이름이 옳은 것은?

○ (ㄱ)에서는 『주례』에 나타난 주나라 제도를 모범으로 하여 중앙과 지방의 정치제도를 개혁할 것을 제안했다.
○ (ㄴ)는 수령들이 백성을 수탈하는 도적으로 변한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백성을 기르는 목민관으로서 지켜야 할 규범을 제시한 일종의 수신교과서이다.
○ (ㄷ)는 백성들이 억울한 벌을 받지 않도록 형벌을 신중하게 집행하기 위해 지은 책이다.

① (ㄱ): 경세유표, (ㄴ): 목민심서, (ㄷ): 흠흠신서
② (ㄱ): 목민심서, (ㄴ): 경세유표, (ㄷ): 흠흠신서
③ (ㄱ): 흠흠신서, (ㄴ): 목민심서, (ㄷ): 경세유표
④ (ㄱ): 경세유표, (ㄴ): 흠흠신서, (ㄷ): 목민심서

정답 1번

정답

정답은 1번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정약용의 대표 저술과 각 저술의 목적을 연결하는 문제이다. 제도 개혁은 『경세유표』, 지방관의 백성 통치는 『목민심서』, 형벌과 재판은 『흠흠신서』에 해당한다.

핵심 정리

경세유표: 『주례』를 바탕으로 중앙과 지방의 정치 제도를 개혁하려 한 국가 제도 개혁서이다.
목민심서: 수령이 백성을 다스릴 때 지켜야 할 자세와 행정 원칙을 제시한 지방 행정 지침서이다.
흠흠신서: 형벌을 신중하게 적용하여 억울한 옥사가 생기지 않도록 재판과 형정의 원칙을 다룬 책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 ㉠ 경세유표, ㉡ 목민심서, ㉢ 흠흠신서의 연결이 모두 옳다. 제도 개혁·수령의 행정·형벌과 재판이라는 각 저술의 주제가 정확히 대응한다.
② X — ㉠을 목민심서, ㉡을 경세유표로 연결한 부분이 틀렸다. 올바르게는 ㉠ 경세유표, ㉡ 목민심서, ㉢ 흠흠신서이다.
③ X — ㉠을 흠흠신서, ㉢을 경세유표로 연결한 부분이 틀렸다. 올바르게는 제도 개혁을 다룬 ㉠이 경세유표이고, 형벌의 신중한 적용을 다룬 ㉢이 흠흠신서이다. ㉡ 목민심서는 옳다.
④ X — ㉡을 흠흠신서, ㉢을 목민심서로 연결한 부분이 틀렸다. 올바르게는 수령의 행정 지침을 다룬 ㉡이 목민심서이고, 형벌과 재판을 다룬 ㉢이 흠흠신서이다. ㉠ 경세유표는 옳다.

NoteBase

출제자가 노린 함정

세 책이 모두 정약용의 저술이라는 공통점 때문에 제목만 바꾸어 연결하기 쉽다. 특히 '수령'은 목민심서, '형벌'은 흠흠신서라는 직접 단서를 놓치면 ②~④의 교환 조합에 속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문장의 핵심어를 먼저 찾는다. 국가 제도 개혁이면 경세유표, 수령·목민관의 지방 행정이면 목민심서, 형벌·재판·억울한 옥사 방지이면 흠흠신서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경세유표는 제도 개혁, 목민심서는 수령의 행정, 흠흠신서는 형벌과 재판이다.

NoteBase

문 11. 다음 자료와 관련된 단체의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시장에 외국 상인의 출입을 엄금할 것
◯ 다른 나라에 철도부설권을 허용하지 말 것
◯ 지급히 방곡령을 실시하고 구민법을 채용할 것
◯ 금광의 채굴을 금지하고 인민의 방책을 꾀할 것

① 정치적·경제적 각성을 촉진하고, 단결을 공고히 함을 강령으로 삼아 투쟁하였다.
② 1900년 전후 충청과 경기, 낙동강 동쪽의 경상도 등지에서 활동하였다.
③ '가난한 사람을 살려내는 무리'라는 뜻으로 『홍길동전』에서 이름을 따왔다.
④ 을사늑(조)약 이후에 이들 가운데 일부는 의병운동에 참여하였다.

정답 1번

정답

정답은 1번이다.

출제 포인트

자료에 제시된 외국 상인의 시장 출입 금지, 외국에 대한 철도 부설권 불허, 방곡령 실시 등의 요구를 통해 활빈당을 파악하고 관련 내용을 연결하는 문제이다.

핵심 정리

활빈당: 1900년 전후 남부 지방에서 활동한 농민층 중심의 무장 집단으로, 외세의 경제 침탈과 부호의 횡포에 맞서 구국안민책을 내세웠다.
신간회: 1927년에 결성된 민족 협동 전선 단체로, 정치적·경제적 각성 촉진, 단결 공고, 기회주의 일체 부인을 강령으로 내세웠다.

선지별 해설

① X. '정치적·경제적 각성을 촉진하고, 단결을 공고히 함'을 강령으로 내세운 단체는 활빈당이 아니라 신간회이다. 틀린 표현은 활빈당과 신간회의 강령을 연결한 부분이며, 올바르게는 신간회가 이 강령을 내세웠다.
② O. 활빈당은 1900년 전후 충청·경기와 낙동강 동쪽의 경상도 등 남부 지방에서 활동하였다.
③ O. 활빈당은 '가난한 사람을 살리는 무리'라는 뜻으로, 허균의 『홍길동전』에 나오는 활빈당에서 이름을 따왔다.
④ O. 활빈당 세력 가운데 일부는 을사늑약 이후 일어난 의병 운동에 참여하였다.

NoteBase

출제자가 노린 함정

①의 '정치적·경제적 각성', '단결 공고'는 활빈당의 대외 경제 침탈 반대 요구와 분위기가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신간회의 3대 강령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외국 상인의 시장 출입 금지, 방곡령, 외국의 철도 부설권 반대처럼 외세의 경제 침탈을 막으려는 구국안민책이 보이면 활빈당을 먼저 떠올린다. 이어 강령의 시기와 표현을 대조하여 다른 단체의 내용을 가려낸다.

암기 포인트

활빈당 = 외세 경제 침탈 반대·구국안민책, 신간회 = 정치·경제 각성·단결·기회주의 부인이다.

NoteBase

문 12. 다음 (가), (나)에 나타난 신라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가) 속성은 김씨로 태종무열왕이 8대조이다. 할아버지인 주천의 골품은 진골이고 … 아버지는 법청으로 골품이 진골에서 한 등급 떨어져 득난(得難)이 되었다.
— 『성주사낭혜화상백월보광탑비문』 —

(나) 최치원은 난랑비(鸞郎碑) 서문에서 우리나라에는 현묘한 도가 있으니 풍류(風流)라 일컬었다. … 실로 이는 삼교(유·불·선)를 포함하고 중생을 교화한다.
— 『삼국사기』 —

① (가) - 개인의 사회 활동과 일상생활을 규제하였다.
② (가) - 관등 승진의 상한선이 정해져 있었다.
③ (나) - 진흥왕 때 인재양성을 위한 제도로 정착되었다.
④ (나) - 귀족들이 회의를 통하여 중요한 국사를 결정하였다.

정답 4번

정답

정답은 4번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신라의 골품제와 화랑도, 화백회의의 기능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가) 골품제는 혈연에 따른 신분 등급으로 관등 승진의 한계와 복식·주거 등 생활 범위를 제한한 제도이다.
(나) 화랑도는 신라의 청소년 수련 조직으로, 난랑비 서문의 풍류와 삼교를 아우른다는 내용으로 확인된다.
화백회의는 진골 귀족들이 모여 국가의 중대사를 논의·결정한 회의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골품제는 신분에 따라 관직 진출뿐 아니라 복식·주거·수레 사용 등 사회 활동과 일상생활도 제한하였다.
② O. 골품제에서는 골품마다 오를 수 있는 관등의 상한이 정해져 있었다.
③ O. (나)의 화랑도는 진흥왕 때 인재 양성과 국가적 결속을 위해 정착한 청소년 수련 조직이다.
④ X. '(나)'가 틀렸다. 귀족들이 회의를 통해 중요한 국사를 결정한 것은 화랑도가 아니라 화백회의이다.
올바르게는 '화백회의는 귀족들이 회의를 통하여 중요한 국사를 결정하였다.'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④는 '귀족들이 회의를 통하여 중요한 국사를 결정하였다'는 설명 자체는 맞지만, 이를 (나)의 화랑도에 연결한 점이 틀렸다. 화랑도와 화백회의의 역할을 바꾸어 제시한 함정이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골품·관등·생활 제한이 보이면 골품제를, 난랑비·풍류·삼교가 보이면 화랑도를, 진골 귀족의 합의와 중대사 결정이 보이면 화백회의를 연결해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골품제는 신분과 관등 상한, 풍류는 화랑도, 귀족 회의는 화백회의이다.

NoteBase

문 13. 대한민국임시정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1919년 파리강화회의에 대표를 파견하는 등 외교활동을 전개하였다.
ㄴ. 민주주의에 입각한 정치형태를 갖추었으나, 국내와는 연결된 적이 없었다.
ㄷ. 블라디보스토크와 상해, 한성(서울) 등 세 곳의 임시정부가 협력하여 구성하였다.
ㄹ. 기관지로 『독립신문』을 간행하여 주로 독립 운동에 관한 사실을 보도하였다.

① ㄱ, ㄴ
② ㄱ, ㄷ, ㄹ
③ ㄴ, ㄷ, ㄹ
④ ㄱ, ㄴ, ㄷ, ㄹ

정답 2번

정답

정답은 2번이다.

출제 포인트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립 과정과 국내외 활동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3·1 운동 이후 수립된 민주 공화제의 임시 정부이다. 국내와의 연락망으로는 연통제와 교통국을 두었고, 해외에서는 외교 활동과 독립운동 선전 활동을 전개하였다.

ㄱ~ㄹ 판단

ㄱ O: 김규식을 파리 강화 회의에 파견하여 독립을 호소하는 등 외교 활동을 전개하였다.
ㄴ X: 민주주의에 입각한 정치 형태를 갖추었을 뿐 아니라, 국내에는 연통제·교통국을 통해 연결되었다.
ㄷ O: 상하이·한성·노령의 임시정부가 통합되어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구성되었다.
ㄹ O: 기관지 『독립신문』을 간행하여 독립운동 관련 소식을 알렸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ㄱ은 옳지만 ㄴ은 틀리고, 옳은 ㄷ·ㄹ이 빠졌다. 틀린 표현인 '국내외는 연결된 적이 없었다'는 '연통제와 교통국으로 국내와 연결되었다'로 고쳐야 한다.
② O: ㄱ·ㄷ·ㄹ만 옳게 골랐다.
③ X: ㄷ·ㄹ은 옳지만 ㄴ을 포함하고 ㄱ을 빠뜨렸다. 틀린 ㄴ의 '연결된 적이 없었다'는 '국내 연락망을 조직하여 연결되었다'로 고쳐야 한다.
④ X: ㄱ·ㄷ·ㄹ은 옳지만 ㄴ이 틀리므로 모두 옳다는 판단은 성립하지 않는다. ㄴ은 '국내외와 연결된 적이 없었다'가 아니라 '국내외 독립운동 세력과 연계하였다'로 고쳐야 한다.

오답 포인트

ㄴ은 임시정부의 민주 공화제 성격만 제시한 뒤 국내외와 단절되었다고 바꾸어 놓은 선지이다. 연통제·교통국은 국내 연락망이라는 점을 기억하면 ㄴ을 바로 걸러낼 수 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임시정부 관련 선지는 정치 형태, 국내 조직, 해외 활동을 나누어 확인한다. 민주 공화제와 연통제·교통국, 외교 활동·『독립신문』이 함께 제시되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특징으로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임시정부: 민주 공화제 · 국내는 연통제·교통국 · 해외는 외교 활동 · 기관지는 『독립신문』이다.

NoteBase

문 14. 조선 후기의 시대 상황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광작을 통해 부농이 될 수 있었다.

② 광산 경영 방식에서 덕대제가 유행하기 시작하였다.

③ 『금양잡록』, 『농서집요』 등의 농서가 간행되었다.

④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하여 독립 수공업자들이 나타났다.

정답 3번

정답

정답은 3번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조선 후기 농업·수공업·광업·상업의 변화와 조선 전기 농서의 시기를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조선 후기에는 이앙법 보급과 상품 화폐 경제의 발달을 배경으로 광작, 덕대제에 의한 광산 경영, 독립 수공업자의 출현이 나타났다. 반면 『금양잡록』과 『농서집요』는 조선 전기의 농서이다.

선지별 해설

① O. 조선 후기에는 이앙법의 보급 등으로 생산력이 높아지면서 넓은 땅을 경작하는 광작이 가능해졌고, 부농이 성장하였다.

② O. 조선 후기에는 물주로부터 자본을 조달받은 전문 광산 경영인인 덕대가 임노동자를 고용하여 광산을 경영하는 덕대제가 유행하기 시작하였다.

③ X. 틀린 표현은 『금양잡록』, 『농서집요』 등의 농서가 조선 후기에 간행되었다는 부분이다. 『금양잡록』은 성종 때 강희맹이 편찬한 농서이고, 『농서집요』도 조선 전기의 농서이므로 모두 조선 전기에 해당한다.

④ O. 조선 후기에는 상품 화폐 경제가 발달하면서 관영 수공업의 장인과 달리 시장을 상대로 생산하는 독립 수공업자가 나타났다.

오답 포인트

광작·덕대제·독립 수공업자는 조선 후기 경제 변화이지만, 농서라는 말만 보고 『금양잡록』과 『농서집요』까지 후기로 묶기 쉽다. 두 책은 조선 전기 농서라는 점이 함정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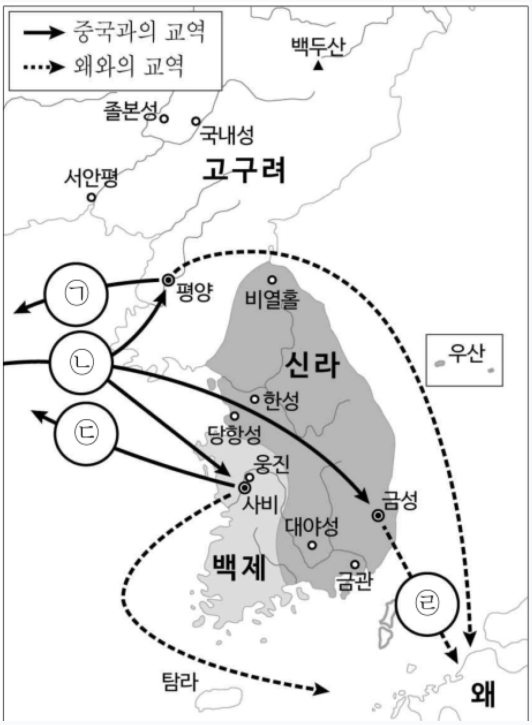
조선 후기 경제사 선지에서는 광작, 덕대제, 상품 화폐 경제, 독립 수공업자를 찾는다. 농서가 제시되면 책의 편찬 시기를 따로 확인하여 조선 전기 농서와 후기 농업 변화를 구분한다.

암기 포인트

금양잡록·농서집요는 조선 전기, 광작·덕대제·독립 수공업은 조선 후기이다.

NoteBase

문 15. 다음은 삼국의 주요 대외 교역 물품을 표시한 지도이다. ㉠ ~ ㉣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은?



① ㉠: 도자기, 비단, 서적

② ㉡: 인삼, 직물류

③ ㉢: 금, 은, 모피류

④ ㉣: 곡물, 비단

정답 4번

정답

정답은 4번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삼국의 대외 교역 지도에서 화살표의 방향과 실선·점선의 구분을 바탕으로 수출품과 수입품을 판단하는 문제이다. ㄱ은 평양에서 중국으로 향하는 고구려의 수출, ㄴ·ㄷ은 중국에서 삼국의 수도로 들어오는 수입, ㄹ은 금성에서 왜로 향하는 신라의 수출을 가리킨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ㄱ은 평양에서 중국으로 향하는 화살표이므로 고구려의 대중 수출품이다. 도자기·비단·서적은 중국에서 들여온 물품이다. 틀린 표현 '도자기, 비단, 서적' → 올바르게는 '금·은·모피류 등'이다.
② X. ㄴ은 중국에서 삼국으로 들어오는 화살표에 해당하므로 중국산 수입품을 넣어야 한다. 인삼은 한반도에서 중국으로 내보내던 물품이다. 틀린 표현 '인삼, 직물류' → 올바르게는 '도자기, 비단, 서적 등'이다.
③ X. ㄷ은 중국에서 백제의 사비로 들어오는 화살표이므로 중국에서 들여온 물품이다. 금·은·모피류는 삼국이 중국에 내보낸 대표적 수출품이다. 틀린 표현 '금, 은, 모피류' → 올바르게는 '도자기, 비단, 서적 등'이다.
④ O. ㄹ은 신라의 금성에서 왜로 향하는 점선 화살표이다. 신라는 왜에 곡물과 비단을 수출하였다.

오답 포인트

①의 도자기·비단·서적과 ③의 금·은·모피류는 각각 수입품과 수출품이라는 점은 맞지만, 지도상의 화살표 방향과 맞지 않는다. 물품 자체만 외우면 교역 방향을 바꾸어 고르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먼저 화살촉이 중국·왜 쪽을 향하면 한반도에서 나가는 수출로, 삼국의 수도 쪽을 향하면 외국에서 들어오는 수입으로 구분한다. 그다음 실선은 중국과의 교역, 점선은 왜 등 외국과의 교역인지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중국 수입은 도자기·비단·서적, 중국 수출은 금·은·모피류이며, 신라는 왜에 곡물·비단을 내보낸다.

NoteBase

문 16. 발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ㄱ. 인안, 대흥 등 독자적인 연호를 사용하였다.
ㄴ. 중앙 관제로 당과 비슷한 3성 6부제를 시행하였다.
ㄷ. 동해안을 따라 신라에 이르던 교통로를 '신라로'라 하였다.
ㄹ. 무왕은 스스로 전륜성왕이라 자처하고, 일본에도 사신을 파견하였다.

① ㄱ, ㄷ
② ㄴ, ㄹ
③ ㄱ, ㄴ, ㄷ
④ ㄱ, ㄴ, ㄷ, ㄹ

정답 3번

정답

정답은 3번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발해의 독자적 연호, 중앙 관제, 교통로와 왕별 업적을 구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발해는 당의 제도를 수용하면서도 독자적 연호와 관제를 운영한 고구려 계승 국가이다. 무왕은 인안, 문왕은 대흥 등의 연호를 사용하였고, 발해와 신라를 잇는 길은 신라도이다. 전륜성왕(轉輪聖王)은 불교에서 세상을 정법으로 다스리는 이상적 군주를 뜻하는 칭호로, 발해에서 이를 자처한 인물은 무왕이 아니라 문왕이다. 문왕의 딸인 정효공주 묘지명에는 문왕이 '대흥보력효감금륜성법대왕(大興寶曆孝感金輪聖法大王)'이라는 존호로 나타나는데, 여기서 금륜(金輪)은 전륜성왕 가운데 최고인 금륜왕을 가리키므로, 문왕이 불교적 이상 군주를 표방하였음을 보여 준다.

선지별 해설

① ㄱ O. 무왕의 인안과 문왕의 대흥은 발해가 사용한 독자적 연호이다.
② ㄴ O. 발해는 당의 제도를 받아들여 정당성·선조성·중대성을 둔 3성 6부제를 운영하였다.
③ ㄷ O. 발해는 동해안을 따라 신라로 이어지는 교통로를 두었으며, 이를 신라도라 하였다.
④ ㄹ X. 무왕이 일본에 사신을 파견한 사실은 옳으나, 스스로 전륜성왕이라 자처한 인물은 무왕이 아니라 문왕이다. 문왕은 대흥·보력 연호를 사용하였고, 정효공주 묘지명에 전하는 존호 '대흥보력효감금륜성법대왕'의 금륜성법(金輪聖法)이 전륜성왕(금륜왕)을 표방한 것으로, 스스로 황상(皇上)을 칭하며 왕권을 높였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ㄹ은 무왕의 일본 사신 파견이라는 옳은 사실에 문왕의 전륜성왕 자처를 결합하여 인물을 뒤섞었다. 한 선지에 여러 사실이 있으면 인물별 업적이 모두 맞는지 따져야 한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발해사 선지는 연호·제도·교통로·왕별 업적으로 나누어 확인한다. 특히 무왕은 인안·대외 팽창·일본 교류, 문왕은 대흥·3성 6부제 정비·전륜성왕 표방과 연결한다.

암기 포인트

무왕은 인안·일본 교류, 문왕은 대흥·3성 6부제·전륜성왕, 고왕은 진국 건국이다.

NoteBase

문 17. 조선 후기 신분 변화와 역할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① 양반의 수는 늘어나고 상민과 노비의 수는 줄어들었다.

② 역관은 외래문화의 수용에서 선구적 역할을 수행하였다.

③ 서얼은 신분 상승 운동에도 불구하고 관직에 진출할 수 없었다.

④ 군공이나 납속책 등을 통해 노비의 신분이 상승되고 공노비는 해방되었다.

정답 3번

정답

정답은 3번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조선 후기 신분제의 동요와 각 신분층의 사회적 역할을 구분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조선 후기에는 납속·군공 등으로 양반 신분을 얻는 사람이 늘고 노비 수는 줄어들면서 신분제가 흔들렸다. 서얼은 양반의 첩에게서 태어난 자손으로 차별을 받았으나, 서얼 통청 운동을 통해 관직 진출의 길을 넓혀 갔다. 역관은 외국어를 담당한 중인으로서 외래 문화를 받아들이고 전하는 데 기여하였다.

선지별 해설

① O. 조선 후기에는 납속, 군공, 족보 매입 등을 통해 양반이 늘어났다. 반대로 상민과 노비의 수는 감소하여 기존 신분 질서가 약화되었다.

② O. 역관은 외국과의 교류에서 통역을 맡은 중인으로, 청을 통해 들어온 새로운 문물과 외래 문화를 수용·전파하는 데 선구적 역할을 하였다.

③ X. 틀린 표현은 '관직에 진출할 수 없었다'이다. 서얼은 차별 철폐와 관직 진출을 요구하는 서얼 통청 운동을 벌였고, 조선 후기에는 관직 진출의 길을 넓혀 갔다.

④ O. 노비는 군공을 세우거나 납속하는 방식으로 신분을 높일 수 있었고, 1801년에는 공노비가 해방되었다. 이는 노비제의 동요를 보여 준다.

오답 포인트

③은 서얼이 차별을 받았다는 사실만 기억하면 맞는 말처럼 보인다. 그러나 조선 후기의 핵심은 서얼이 통청 운동을 전개하여 관직 진출의 길을 넓혔다는 점이므로, '진출할 수 없었다'가 틀린 표현이다.

NoteBase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조선 후기 신분 변화를 묻는 선지에서는 양반 수 증가, 노비 수 감소, 중인의 전문적 역할 확대, 서얼의 관직 진출 요구와 확대를 한 묶음으로 판단한다. 신분 차별이 남아 있었다는 사실과 신분 상승의 통로가 넓어졌다는 사실을 구별한다.

암기 포인트

후기 신분제는 양반 증가·노비 감소·서얼 통청·공노비 해방으로 동요하였다.

NoteBase

문 18. 밑줄 친 '가라(가야)국'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진흥왕이 이찬 이사부에게 명하여 가라(가야라고도 한다)국을 공격하도록 하였다. 이때 사다함은 나이 15, 6세였음에도 종군하기를 청하였다. 왕이 나이가 아직 어리다 하여 허락하지 않았으나, 여러 번 진심으로 청하고 뜻이 확고하였으므로 드디어 귀당 비장으로 삼았다. … 그 나라 사람들이 뜻밖에 군사가 쳐들어오는 것을 보고 놀라 막지 못하였으므로 대군이 승세를 타고 마침내 그 나라를 멸망시켰다.
— 『삼국사기』 —

① 시조는 수로왕이며 구지봉 전설이 있다.

② 나라가 망할 즈음 우륵이 가야금을 가지고 신라로 들어갔다.

③ 낙동강 하류에 도읍하고 해상 교역을 중계하였다.

④ 국주(國主) 김구해가 항복하자 신라왕이 본국을 식읍으로 주었다.

정답 2번

정답

정답은 2번이다.

출제 포인트

제시문은 진흥왕이 이사부와 사다함을 보내 멸망시킨 대가야를 가리킨다. 대가야 멸망 뒤 우륵이 가야금을 가지고 신라에 들어간 사실을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대가야는 고령을 중심으로 성장한 가야 연맹의 세력으로, 진흥왕 때 신라에 병합되었다. 금관가야는 김해를 중심으로 낙동강 하류와 바다를 이용해 해상 교역을 중계한 나라이다. 수로왕·구지봉 전설과 국주 김구해의 항복은 금관가야의 사실이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X. 수로왕을 시조로 하고 구지봉 전설이 전하는 나라는 금관가야이다. 틀린 표현은 대가야를 가리키는 '가라국'에 이 사실을 연결한 점이며, 올바르게는 '금관가야의 시조는 수로왕이며 구지봉 전설이 있다'이다.

② O. 대가야가 신라에 멸망한 뒤, 대가야의 악사 우륵이 가야금을 가지고 신라로 들어갔다.

③ X. 낙동강 하류에 자리하여 해상 교역을 중계한 나라는 금관가야이다. 틀린 표현은 대가야의 위치와 활동으로 서술한 점이며, 올바르게는 '금관가야가 낙동강 하류에 도읍하고 해상 교역을 중계하였다'이다.

④ X. 국주 김구해가 항복하고 신라왕에게 본국을 식읍으로 받은 일은 금관가야가 신라에 병합될 때의 사실이다. 틀린 표현은 이를 대가야의 멸망과 연결한 점이며, 올바르게는 '금관가야의 국주 김구해가 항복하자 신라왕이 본국을 식읍으로 주었다'이다.

오답 포인트

①·③·④는 모두 금관가야의 특징인데, 제시문의 사다함과 진흥왕은 대가야 정복과 연결된다. '가야'라는 큰 범주만 보고 금관가야의 사실을 고르면 틀리기 쉽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가야 관련 선지는 먼저 사건의 주체와 시기를 확인한다. 진흥왕·이사부·사다함·우륵은 대가야, 수로왕·구지봉·낙동강 하류·김구해는 금관가야로 구별한다.

암기 포인트

대가야는 우륵·진흥왕의 정복, 금관가야는 수로왕·해상 교역·김구해이다.

NoteBase

문 19.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칙령 제41호

제1조 울릉도를 울도라 개칭하여 강원도에 부속하고, 도감을 군수로 개정하여 관제 중에 편입하고, 군의 등급은 5등으로 한다.

제2조 군청 위치는 태하동으로 정하고, 구역은 울릉전도(鬱陵全島)와 죽도, (㉠)을/를 관할한다.

① 『세종실록지리지』에는 강원도 울진현 소속으로 구분하고, 우산으로 표기하였다.
② 숙종 때 안용복은 일본에 건너가 울릉도와 더불어 조선의 영토임을 확인받았고, 당시 일본에서는 '송도(松島)'로 기록하였다.
③ 일본 정부는 1870년대에 조선의 영토임을 인정했으면서도, 1905년 국제법상 무주지(無主地)라는 명목으로 일본 영토에 편입시켰다.
④ 1952년 UN군 사령부와 협의하에 이승만 정부는 '인접 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을 발표하여 한국의 영토로 확인하였고, 당시 일본은 이를 묵인하였다.

정답 4번

정답

정답은 4번이다.

출제 포인트

이 문제는 칙령 제41호의 관할 대상인 독도와, 조선·대한제국 및 일본의 독도 인식·조치가 서로 어떻게 다른지를 묻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칙령 제41호는 1900년 대한제국이 울릉도를 울도군으로 개칭하고 관할 구역을 울릉 전도·죽도·석도로 정한 행정 문서이다. 여기서 석도는 독도를 가리킨다.
조선과 대한제국은 독도를 우산도·자산도·석도 등으로 기록하며 영토로 인식하였다. 반면 일본은 1905년 독도를 무주지라고 주장하여 시마네현에 편입하였다.

NoteBase

선지별 해설

① O. 『세종실록지리지』의 강원도 울진현 조에는 울릉도와 우산도가 울진현 정동 바다 가운데에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우산도는 독도의 옛 이름으로 이해된다.
② O. 숙종 때 안용복은 일본에 건너가 울릉도와 자산도가 조선의 영토임을 주장하였다. 일본에서 독도는 송도(松島)로 기록되었다.
③ O. 일본 태정관은 1877년 울릉도와 독도가 일본과 관계없다는 취지로 지시하였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1905년 독도를 무주지라고 주장하며 시마네현에 편입하였다.
④ X. 틀린 표현은 'UN군 사령부와 협의하에'와 '일본은 이를 묵인하였다'이다. 실제로 이승만 정부는 1952년 인접 해양의 주권에 관한 대통령 선언을 일방적으로 발표하였고, 일본은 이에 항의하였다.

오답 포인트

④는 1952년 평화선 선언의 발표 경위와 일본의 반응을 바꾸어 놓은 선지이다. 평화선은 UN군 사령부와의 협의 결과가 아니며, 일본이 이를 묵인한 것도 아니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독도 관련 사료에서는 옛 명칭과 시기를 함께 확인한다. 우산도·자산도·석도는 조선·대한제국의 독도 인식과 연결하고, 1905년 일본의 무주지 주장과 1952년 평화선 선언은 일본의 항의 여부까지 구분하여 판단한다.

암기 포인트

우산도·자산도·석도는 독도, 칙령 제41호는 울도군 관할, 1905년 일본의 무주지 주장, 1952년 평화선은 일본 항의로 정리한다.

NoteBase

문 20. 다음 자료에 나타난 의병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최익현 부대는 순창에서 대한제국 정부가 보낸 진위대와 대치하게 되자 … 임금의 군대와 싸울 수는 없다면서 스스로 포로가 되었다.
◯ 이인영은 부친상을 당하자 '불효는 불충'이라면서 귀가해버려 결국 서울진공작전은 실패하고 말았다.

① 입헌군주제를 지향하였다.
② 관군에 합류하기 위하여 투항하였다.
③ 천도교를 배경으로 전개되었다.
④ 의병장은 주로 양반 유생이었다.

정답 4번

정답

정답은 4번이다.

출제 포인트

최익현의 순창 의병과 이인영의 서울 진공 작전을 단서로, 을사의병·정미의병으로 이어진 의병 운동의 성격을 파악하는 문제이다.

핵심 개념

의병은 일본의 침략과 국권 침탈에 맞서 일어난 민간의 무장 항쟁이다. 초기 의병은 위정척사 사상을 지닌 양반 유생이 주도하였고, 정미의병 때에는 해산 군인과 평민의 참여가 늘어났다. 최익현은 을사의병의 대표적 의병장이고, 이인영은 13도 창의군을 이끌어 서울 진공 작전을 추진하였다.

선지별 해설

① X. 의병은 국권 회복과 전통적 왕정 질서의 수호를 내세운 경우가 많았으며, 입헌군주제를 지향한 운동이 아니다. 틀린 표현은 '입헌군주제'이며, 올바르게는 '국권 회복과 왕정 질서 수호를 지향하였다'이다.
② X. 정미의병은 군대 해산 뒤 해산 군인이 의병에 참여하면서 강화되었다. 관군에 합류하려고 투항한 것이 아니다. 틀린 표현은 '관군에 합류하기 위하여 투항하였다'이며, 올바르게는 '해산 군인이 의병에 합류하였다'이다.
③ X. 천도교를 기반으로 전개된 대표적 운동은 동학 농민 운동이며, 의병 운동의 사상적 배경은 위정척사 사상과 항일 의식이다. 틀린 표현은 '천도교를 배경으로'이며, 올바르게는 '위정척사 사상과 항일 의식을 바탕으로'이다.
④ O. 초기 의병은 유생층이 주도하였으므로 의병장은 주로 양반 유생이었다. 최익현도 대표적인 유생 의병장이다.

NoteBase

오답 포인트

②는 해산 군인이 의병에 들어간 사실을 '관군에 합류하기 위한 투항'으로 뒤집은 선지이다. ③은 동학 농민 운동·천도교 계열의 흐름을 의병 운동과 혼동하게 만든다.

다시 나오면 이렇게 판단

최익현·을사늑약 뒤의 항쟁이 보이면 을사의병과 유생 의병장을 연결한다. 이인영·13도 창의군·해산 군인이 보이면 정미의병의 확대를 연결한 뒤, 의병의 주도층과 사상적 배경을 확인한다.

암기 포인트

최익현은 을사의병의 유생 의병장, 이인영은 13도 창의군의 서울 진공 작전이다.

NoteBase